

독일 울름대학교 계속교육센터의 융합교육 사례

박 응 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요약]

본 연구는 고령자들을 위한 노인교육에 관한 대학의 융합교육 사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독일 울름대학교의 학문적인 계속교육 센터(ZAWiW)의 노인주제관련 여러 전공 영역간의 연계, 세대간의 협력 모형을 분석하여 대학기관의 노인교육 다양성과 차별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인학습자 참여 중심으로 학제간 연구와 노인기의 삶이 연계된 다양한 주제들이 진행되고 있다. 계절아카데미, 울름 3-세대간 대학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연계, 학제간 융합 등이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교육에 대한 대학의 차별화 전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주제어: ZAWiW, 융합교육, 독일 울름대학교, 노인교육, 계절아카데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여러 방면의 정책적 제안과 사회적 패러다임이 보완되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1). 2020년 65세~79세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도는 29.5%이며, 평생교육 유형별로 살펴보면 형식교육은 0.1%이고 비형식교육은 29.4%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고령자들의 노동활동의 유지와 더불어 고령자들 스스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며 성장할 수 있는 자율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늘어난 생애 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제적으로 살아 내어야 하는 존재(박응희 2009, 139)가 될 수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장된 노인시기를 맞이한 개인

* 제1저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sommer01@naver.com)

들에게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한 준비, 정체성과 역할 탐색에 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학습네트워크의 형성에 주목하게 된다. 고령자들을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 놓인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자들을 위한 노인교육에 대한 융합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울름대학교(Universität Ulm)의 학문적인 계속교육 센터(Das Zentrum für Allgemeine Wissenschaftliche Weiterbildung: ZAWiW)를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울름대학교 ZAWiW 현황을 살펴보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대학과 지역의 연계 노인주제관련 여러 전공 영역간의 연계, 세대 간의 협력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에서의 노인교육 다양성과 차별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사례를 통해 노인관련 주제와 연결된 대학의 역할, 지역과의 연계, 국제교류와 협력, 세대간의 융합 등을 다룰 수 있다.

II. 독일 울름대학교의 ZWIW의 융합교육 현황

독일의 울름대학교는 독일의 서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Land Baden-Württemberg)에서 1967년 개교한 비교적 역사가 짧은 연구중심 대학교이다. 울름대학교는 미래지향적인 전공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질의 직업교육과정, 국제교류, 학제간 연구에 중점을 두고 혁신적인 연구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젊은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울름대학교는 사람과 건강과 같은 미래의 기술, 지속가능성, 고령화 영역에 대한 학제간 연구주제와 전략들을 다루고 있다. 울름대학교의 연구 강점은 높은 제3자금 유입과 많은 큰 규모의 특별연구영역 같은 연합프로젝트와 연주자모임에 있다. 2021년 현재 의학부와 자연과학부, 수학·경제학부, 정보학·심리학부의 4개 학부, 62개 이상의 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울름대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학제간 연구를 중시하였으며, 특히 산업현장과 학술연구를 접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노인학습자를 위한 협력교육 기반의 ZWIW

울름대학교내 학문적인 계속교육 센터(Das Zentrum für Allgemeine Wissenschaftliche

Weiterbildung: ZAWiW)는 1994년 3월에 모든 연령대의 성인,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학제간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립되었다. ZAWiW는 참여자의 계속교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에 초점을 두며, 특히 제3 연령기의 성인(노인)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의 실행과 발전에 중점을 둔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에서 새로운 교과과정 및 방법론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다시 말해 ZAWiW은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 특히 노인대상 평생교육 영역에서 학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즉, 노인참여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에 맞추어,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자기활동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의 개념과 제언에 대한 발전과 지속적인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평생학습을 통해 노인들이 자기고유의 활동성을 강화시키고 사회, 경제와 문화 영역과 - 지역, 국가와 국제적인 차원에서 - 은퇴후 새로운 과제를 위해 그들을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ZAWiW의 목표설정에는 학문과 시민 간 교류를 촉진하는 것, 새로운 과제와 활동영역을 위한 노인들의 자격화와 같은 사회참여와 중심 사회문제에 대한 세대 및 세대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기술의 지원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학문과 그에 대한 실천을 중점으로, 특히 평생교육 영역에서 독학과 조직의 활용을 위해 기존의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노인교육의 조직과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ZAWiW은 올름대학교의 정신과학부의 한 기관으로써 올름대학교의 모든 전공과 연구소들과 협력한다. 학문적인 연구기관과 유사한 목표설정을 가지며,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 다양한 노년조직들과 협력하는 것에 있다. 그 밖에 ZAWiW는 1년에 2회 사회적으로 연관된 주제에 중점을 둔 “계절아카데미(Jahreszeitenakademien) 조직과 진행을 하고 있다. 한편 규칙적으로 운영되는 ‘연구하는 학습과 학업(Forschendes Lernen und das Studium)’도 창설시켰다. 더 나아가 ZAWiW는 제3기금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시민참여와 시민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이와 관련된 주요 중점주제는 노인의 삶의 영역을 고려한 사회의 디지털화에 있다. ZAWiW의 콜로키움에서는 ‘연구하는 학습과 학업(Forschendes Lernen und das Studium)’ 영역에서 학문적인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2. ZAWiW의 활동 영역

1) 국제활동

1995년 교육에 관심있는 노인과 노인교육에서의 계속교육기관들의 연합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 후반기 삶에서의 학습(Learning in Later Life "LiLL)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7년 10월 컨퍼런스 " web4seniors "와 같은 전문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더 나아가 ZAWiW은 유럽 연합프로젝트와 학습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 후반기 삶에서의 이러닝 (eLearning in Later Life "(eLiLL), 노인학습, ICT4T, " PEER- Dare to be wise! ", G&G 업데이트와 제3연령대 온라인(Third Age Online(TAO)" 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ZAWiW은 유럽 다뉴브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틀안에서 유럽 교육네트워크인 다뉴브 네트워커(Danube Networker)를 시작하였다. ZAWiW이 2010년 유럽 위원회에 제출한 "다뉴브 지역의 사회적 필요성으로서 노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Lifelong learning programmes for older adults as a societal necessity in the Danugbe Region)" 은 다뉴브지역의 60 여개가 넘는 조직들이 지원하여 진행되었다.

2) 국내활동

ZAWiW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모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 "인터넷을 통해 함께 학습하기" (2000-2005): 이 프로젝트 속에서 인터넷에 대한 나이든 성인들의 학습가능성과 협력가능성이 다양한 과정과 학습그룹에서 테스트되고 평가되었다. "나이든 성인의 가상 및 실제 학습-네트워크와 역량-네트워크 협회(Virtuelle und reale Lern- und Kompetenz-Netzwerk älterer Erwachsenen e.V: ViLE)는 모델프로젝트와 연결되었다. 그리고 나이든 성인의 온라인-커뮤니티로서 '함께 학습하기' 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여기에서 2005년부터 몇 가지 자기주도적인 가상 학습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 ZAWiW은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 학습카페(LernCafe) "와 더불어 나이든 성인의 계속교육관련 수요를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잡지를 시작하고 만들었다.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의 모델프로젝트 "노인-온라인-편집(Senior-Online-Redaktion)" 에서 나이든 성인들이 편집하는 것을 배우고 이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함께 작업하는 것을 협력하게 되었다.

3) 지역 차원의 활동

ZAWiW은 주정부 차원에서 지역과 장소에서 활동되고 있다. 세대간 학습과 접근이 수행

된다. 예를 들어 올름시의 학습네트워크 “KOJALA” (학습교환시 젊은이와 노인의 역량 : Kompetenzen von Jung und Alt im Lernaustausch) 또는 “u3gu” (올름의 3-세대대학교: Ulmer Drei-Generationen Universität)이다.

3년간의 모델프로젝트인 KOJALA (2006-2009)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역량거래와 함께 젊은이와 노인의 지식교환을 지원했다. 그리고 학습프로젝트, 교육과정 및 학습-이벤트에서, 학교, 대학교와 같이 많은 다른 장소에서 활동적인 세대간 학습교류를 만들었다. 모델프로젝트 종료 후부터 올름시 교육청이 올름시와 함께 학습네트워크를 만들었다.

ZAWiW은 세대간 및 문화간 동시에 기초를 다졌다. 예를 들자면 노인들이 외국의 박사과정 학생(M4M) 및 학생(ASSIST)을 위한 돌봄프로그램을 만들었다.

4) 계절아카데미(Jahreszeitenakademien)

ZAWiW는 1년에 2회 계절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봄아카데미는 3월말과 가을아카데미는 9월말에 개최된다. 한 주간동안 사회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강연, 연구자그룹과 지도자그룹의 프로그램에서 다룬다. 패키지형식으로 갖춘 평생교육의 제공으로써 계절아카데미는 관련된 주제의 확장과 더불어 ‘제3 연령기’의 사람들의 수요에 직면하게 된다. 주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특히 사회적인 문제제기와 직면하고 그리고 다양한 연구자의 관점으로부터 이끌어 낸 학문적인 토론에 직면한다. 계절아카데미는 올름대학교 내부와 외부의 참여와 준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1992년 봄부터 시작한 계절아카데미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으면 매회 400명 ~6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2021년 가을아카데미는 9월 28일 ~30일 ‘학문이 미래를 만든다(Wissenschaft zukunft - Wissen schafft Zukunft)’로 진행된다. 계절학기 등록은 온라인으로 50유로(ZAWiW에 참여하는 이들은 40유로)를 참가비로 지급한다.

5) 연구하는 학습(Forschendes Lernen)

‘연구하는 학습’의 방법은 노인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주제와 오랜시간 동안 제기되는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학문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일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있다. 여기서는 연구주제가 좀처럼 경시되지 않게 하는데 있다. 언급된 주제들이 잊혀지거나, 작업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방해받지 않고 이해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연구디자인의 발전에 있어서 고령자의 관점과 경험들이 때때로 도움이 된다. 전문적인

지원은 참여자들이 학자들과의 상담과 동행에서 경험하게 된다. ZAWiW의 ‘연구하는 학습’은 다양한 주제에서 많은 작업공동체를 조직하였다. 작업공동체의 참여자들은 조직적이고 학문적인 지도아래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작업공동체와 연락은 조직의 각 대변인을 통해 상담을 통해 향후 진행된다. 작업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학기당 개인별 40유로를 내고 참여한다. ‘연구하는 학습’의 참여자들은 또한 ZAWiW의 그 외의 강의와 콜로키움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6) 울름 3-세대간 대학(Ulmer Drei-Generationen Universität : u3gu)

울름 3-세대간 대학은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5학년 이상)이 시니어와 함께 전문분야에 익숙한 울름대학교 학생과 학자들의 지도 아래, 자연현상의 흔적을 살펴보는 것이다. 고령자와 젊은 세대가 함께 대학의 체험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강의 참여와 독자적인 실험을 통해 그들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과 연구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울름 3-세대간 대학의 기본은 규칙적으로 과학캠프와 3-세대 순환강의가 개최된다. 울름 3-세대간 대학은 울름대학교의 강의와 ZAWiW이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6년 모델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2010년까지 바덴-뷔텐부르크주의 과학·연구·예술부 (Ministerium für Wissenschaft, Forschung und Kunst Baden-Württemberg)의 지원을 받았다. 모델단계 이후 울름대학교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후원과 재원지원을 이끌어냈다.

3-세대간 대학의 모든 강좌에 대한 규칙적인 정보는 이메일(info(at)u3gu.de)을 통해 전달된다. 울름 3-세대간 대학의 다양한 뉴스레터를 보거나 학문적인 계속교육 센터에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III. 울름대학교 ZAWiW의 특성

1. 지역·대학·노인학습자들의 협력적 네트워크 기반

대학교가 가진 노인관련 교수진·연구 후학세대·학교 밖 전문가 등이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 연결되어 계절아카데미, 포럼, 울름 삼-세대간 대학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실행화되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 연계망 속에는 노인당사자들이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서 아

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함께 있다는 점이다. 노인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자원들과의 협력,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노인 당사자 개인들이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노인이 되는 것’을 해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 공동체,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에게 전통적 범주를 넘어선 노인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발굴에 집중하게 된다. 노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운영주체로서의 대학이 가진 연구, 실행, 네트워크의 강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대학의 정규과정을 개방하고 있는 독일 여러 대학의 노인대학(Seniorenstudium) 유형보다 후학연구진, 학교밖 유관기관 연구소,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2. 학습과 실행을 연계한 통합적 모형

ZAWiW 모델은 고령자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연계하고 있다(박응희, 2013).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학의 계속교육(Weiterbildung) 영역의 전문가와 실행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IT관련, 의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융합을 통해 고령자들의 역량과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연계성을 강화하는 학습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계절아카데미’, ‘연구하는 학습’, 포럼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전반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사회적인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들에게 자신들이 살아온 과거와 화해하도록 도와주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생애사적 성찰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이론과 실제의 연결이 노년기의 주요한 학습능력 향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3.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노인교육 전문기관

ZAWiW을 중심으로 노인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단단한 협력망을 구축으로 여러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고, 계절아카데미, ‘연구하는 학습’ 등을 통해서 여전히 국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울름 지역을 기반으로 다뉴브 지역의 여러 유관 기관들과 관계 맺고 있는 점이다. 노인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상호 학습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간의 협력 네트워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들의 자율적 학습능력 향상, 노인들이 보유한 생애사 자원의 활용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적 협력은 주제 관련하여 독일, 다른 국가관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연구를 이끌어냄으로써 노인학습자와 연구자, 관계자들에게 고령화관련 주제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4. 지역과 대학과의 연계에 의한 조직 운영

독일은 주정부와 대학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 독일 연방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주 정부는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지원과 책임귀속, 경제활동 지원, 사회보장 제도의 실시, 경찰과 사법기능의 수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기능이 연방이 아닌 주정부에 있다(박성희·유진영, 2020: 5). 따라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대학들은 학문의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지역적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할 때, 대학 밖의 연구협회 및 다양한 교육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ZAWiW는 울름대학교 외 국내외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작업할 수 있는 제도적 배경과 재원 마련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IV. 울름대학교 ZAWiW의 시사점

1. 노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의 평생학습 차별화 전략

대학교의 노인관련 모델은 대학이 처한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없다. 노인교육에 있어 대학이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타 기관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주제관련 노인학습자들이 계속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한 가지 주제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대학은 그 지역에서 배출한 학자, 현장 전문가 등과 항상 관심사를 다루며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다.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와 현안을 의논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 학습자와 관련자들이 새로운 학문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동시에 개인과 사회의 의미를 반성하고 재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박응희, 2005).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에서 운영 중인 ‘노인대학’은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일부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노인관련 주제 중심으로 대학내 인력, 물적 자원의 연계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대학이 가진 장점을 구현된다고 보기 힘들다. ZAWiW이 보여준 대학내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 학교밖 유관기관의 연결은 노인교육에 대한

대학의 차별화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다.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에 노인들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노인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노인교육에 대한 기관별, 특성화된 내용을 발굴 할 수 있는 운영주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 연구와 실제의 융합 : 노인의 삶과 연관된 주제의 발굴

ZAWiW의 활동은 강의 위주의 수동적인 노인교육 형태에서 벗어나 토론, 포럼, 울름 3-세대간 대학과 같이 현장활동이 첨가되어 다양한 학습활동이 일어나고 있어 학습자 중심의 교육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길어진 노인기에 새롭게 맞이한 디지털화, 온라인 환경 등에서 어떻게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가, 달라진 가족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녀, 손자녀 등을 비롯한 공공체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주제들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학자와 연구자들이 다루는 노인관련 전문주제에 노인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들이 살아온 과거, 현재와 미래가 이론과 현장 경험의 공유를 통해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고 역할과 정체성을 모색하게 된다. 대학내 노인관련 전문센터를 중점으로 학습경험이 축적되는 지역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ZAWiW과 같이 대학내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지역내 대학,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노인기의 삶과 관련된 관심 주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계절아카데미’ 등의 참여자들은 학기당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ZAWiW의 다양한 주제관련 포럼, 연구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다.

3. 세대 간의 융합 : 관계자 참여중심 모형 제언

‘울름 3-세대간 대학’은 청소년, 노인, 대학의 학생 및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된다. 자연과학과 실생활 관련 실험 및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서 세대간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서로 나누고 있다. ‘울름 3-세대간 대학’은 후속 세대의 학교밖 학습활동에 함께하면서 세대가 가진 과거와 현재를 나누면서 다가올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한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가진 문화가 가진 어려움이나 문제를 축소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평생학습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점이다.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에 노인학습자들을 강사나 보조강사를 활용하는 형태를 넘어선 ‘울름 3-세대간 대학’의 모형은 대학, 지역사회, 청소년 관계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 고 문 헌

- 박성희·유진영(2020). 독일의 주정부와 지역대학 연계 사례에 대한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25(2), 1-19.
- 박응희(2013). 독일 고령자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 사례 연구. 성인계속연구. 4(1), 45-60.
- 박응희(2009). 노인교육 시장분석을 위한 노인학습자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5(3), 137-158.
- 박응희(2005). 독일대학교의 노인교육모델에 대한 고찰: 독일 사례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5(3), 249-266.
- 통계청(2021), 2021 고령자 통계.
- 한국교육개발원(2021).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개인실태.

<https://www.uni-ulm.de/einrichtungen/zawiw/> 2021.7.22. 발췌

https://de.wikipedia.org/wiki/Zentrum_f%C3%BCr_Allgemeine_Wissenschaftliche>Weiterbildung
2021.7.22. 발췌

게재신청일: 2021. 11. 28.

게재확정일: 2021. 12. 21.

【Abstract】

Case of Convergence Education at the Continuing Education Center at Ulm University in Germany

EungHee Park (Busan Institute for Talent & Lifelong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spect the case of university convergence education on elderly education. The Center for Academic Continuing Education (ZAWiW) at Ulm University in Germany aims to inquiry the diversity and differentiation of university and related institutions for senior education by analyzing the linkages between various major areas 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elderly and cooperation models between generations. Various topics related to research and life in the elderly are being conducted with a focus on the participation of elderly learners. Through seasonal academy and Ulm 3rd Generation University, connection between regions and universities and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are being actively provided. It can lead to a differentiated strategy of the university for the education of the elderly.

Key words: ZAWiW, Convergence education, Ulm University in Germany, Senior education, Seasonal Academy